

중국 관내지역 조선민족반일투쟁유적지 답사

불명의 발자취

김성룡 저

최룡수 감수

민족출판사

불멸의 발자취

김성룡 저
최룡수 감수

민족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不朽的足迹 / 金成龙著, —北京: 民族出版社, 2005. 11

ISBN 7-105-07336-5

I. 不... II. 金... III. 朝鲜族—抗日斗争—史料—中国—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K264.360.6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5)第129874号

民族出版社出版发行

(北京市和平里北街14号 邮编 100013)

<http://www.e56.com.cn>

迪鑫印刷厂印刷

各地新华书店经销

2005年11月第1版 2005年11月北京第1次印刷

开本:880毫米×1230毫米 1/32 印张:18.25 字数:476千字

印数:0 001—1 000册 定价:36.00元

该书如有印装质量问题, 请与本社发行部联系退换。

(制文室电话:64228211; 发行部电话:64211734)



최용수

- △ 1936년 4월 19일 료녕성 신빈현에서 출생.
- △ 1962년 북경대학 철학학부 졸업.
- △ 중공중앙당학교 철학학부 교수.
- △ 《한락연을 추모하여》를 집필하였고 《조선 <3.1>운동과 중국 <5.4>운동의 비교》, 《주은래와 조선혁명지사》 등 많은 논문을 발표.



김성홍

- △ 1970년 3월 16일 길림성 룡정시에서 출생.
- △ 1993년 연변대학 조선언어문학학부 졸업.
- △ 현재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방송부 부역진.
- △ 《민족의 숨결》, 《눈보라 만리》, 《역사적 선택, 세기의 도전》을 비롯한 대형방송다큐프로를 제작.

责任编辑 全春梅
责任校对 金海玲
封面设计 金 一

책머리에

중국 관내지역은 20세기 전반기 조선 혁명가들과 독립지사들이 중국의 거창한 역사사변들속에서 진리를 찾고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일제와 굴함없이 싸웠던 력사의 현장이다. 조선 혁명가들과 독립지사들은 신해혁명으로부터 북벌전쟁, 로지혁명, 항일전쟁에 이르기까지 중국혁명의 거세찬 물결속에서 만악의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하여 중국의 군민과 어깨결고 싸웠으며 중국 혁명과 항일전쟁 승리에 마멸할수 없는 공적을 남겼다.

많은 조선혁명가들은 중국혁명의 승리는 곧 조선혁명의 승리로 이어질것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중국의 신해혁명과 북벌전쟁에 참가하였으며 국민당이 혁명을 배반하자 의지를 굽히지 않고 계속 중국공산당을 따라 혁명을 견지하였다. 조선혁명가 양림과 무정, 리철부, 김산, 주문빈 등이 그 대표인물이다.

한편 김원봉과 윤세주, 김규광, 박건웅, 류자명을 비롯한 조선 혁명가들과 신정, 신채호, 김구를 대표로 한 독립지사들도 중국 관내에서 각자의 민족독립과 구국의 길을 찾으면서 일제와 싸워왔다. 이들은 서로 비슷하거나 다른 주장을 가지고 중국의 현대사를 함께 하면서 조선민족 반일투쟁사의 한페이지를 엮어놓았다.

중국의 전면적인 항일전쟁이 개시된후 일찍부터 중국 관내에

서 활동하던 조선혁명가들은 의열단을 중심으로 조선혁명가들의 대단합을 초보적으로 형성하고 1938년에 무한에서 조선의용대를 창립하였다. 조선의용대는 1940년까지 국민당 통치구에서 싸우다가 그 주력은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팔로군의 태항산항일근거지에 집결하였다. 중국공산당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태항산에 모인 조선혁명가들은 조선독립동맹을 결성하고 조선의용대를 조선의용군으로 개편하여 항일전쟁이 승리할 때까지 항쟁을 견지하였다. 죽음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온 이들의 항쟁의 발자취는 중국대륙의 방방곡곡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민족지사들의 빛나는 투쟁사는 항쟁의 배아리로 마냥 우리를 부르고있다.

중국 관내 조선인반일투쟁유적지 답사는 장기간의 계획과 준비를 거쳐 2003년 가을부터 시작되었다. 일찍부터 중국 동북의 조선인반일투쟁사를 다룬 《민족의 숨결》, 《눈보라 만리》를 비롯한 본 방송국의 대형프로그램이 청취자들의 환영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방송국 지도부에서는 중국 관내지역 조선인반일투쟁유적지 답사로 우리 민족의 반일투쟁을 다룬 대형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 보기로 하였다.

국내 조선족사학계에서는 중국에서 활동하였던 조선 혁명가와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줄곧 끈질긴 연구를 진행해왔고 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민족 력사와 전통에 대한 이러한 연구는 중화민족의 일원으로서 여러 민족 인민과 더불어 살아가고있는 중국 200만 조선족이 자신을 알고 자신의 전통을 알며 자신의 우수성을 알아야 할 필요성에서 출발한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투쟁사는 많이 연구되었지만 여러가지 원인으로 중국 관내지역에서의 투쟁사에 대한 연구는 분산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정리작업도 따라가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중국공산당을 따라 혁명했던 부분적인 혁명가들의 인물전이 약간 소개되었

울뿐이다. 이러한 유감을 떨쳐버리고저 한것도 중국 관내 조선인 반일투쟁유적지 답사의 주요목적의 하나였다.

답사는 2003년 가을에 시작되어 2년 남짓한 시간이 지난 2005년에 마무리되었다. 관련 내용은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중앙인민방송국의 《오늘의 화제》프로에 《불멸의 발자취》라는 제목으로 2004년 하반기부터 주마다 1회씩 방송되었고 연변텔레비죤방송에도 대형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올해 9월에 17화로 집중 방송되었다. 그리고 중국 관내 조선인반일투쟁유적지에 대한 전반 답사과정을 민속출판사에 의해 드디어 책으로 출판하게 되었다. 더우기 중국인민항일전쟁과 세계반파쇼전쟁 승리 6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에 방송과 더불어 책의 출판이 이루어져 더없는 다행으로 생각한다.

답사팀은 2003년 9월부터 북경, 천진 지역과 상해, 남경 지역 그리고 광주로부터 무한까지, 중경에서 의창까지, 태항산으로부터 연안까지의 긴 답사를 진행해왔다. 그동안 북경, 천진, 상해, 중경, 하북, 하남, 산서, 섬서, 광둥, 강서, 호북, 절강, 강소를 비롯한 10여개 성과 직할시를 다니면서 선렬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왔다.

중국인민항일전쟁승리 및 세계반파쇼전쟁승리 60주년 헌제작 품인 《불멸의 발자취》프로 답사는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선전사와 중앙인민방송국 지도부의 깊은 중시를 받았다. 중앙인민방송국 지도부에서는 답사를 위해 인력, 물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방송운영 경비를 내어 력사고문과 중앙인민방송국 기자 그리고 연변텔레비죤방송국 기자로 무어진 답사팀을 구성하여 답사를 시작하였다. 답사는 중앙인민방송국 각 지방의 기자소와 각지의 선전부, 방송사, 당사연구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물심량면으로 답사팀을 도와준 이들이 없었다면 답사가 한결 더 어려웠을것이다.

본서는 중국 관내 조선인반일투쟁을 답사코스에 따라서 4편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제1편에서는 북경의 조선혁명가들의 유가족을 중심으로 이들을 방문한 내용과 더불어 북경, 천진 지역의 사적지들을 언급하였다.

제2편에서는 중국대혁명시기로부터 시작하여 중국의 전면항일전쟁이 개시된후 무한에서 조선의용대가 창립될 때까지의 투쟁사를 언급하였다.

제3편에서는 김구와 임시정부 그리고 김원봉과 조선민족혁명당의 행적을 중심으로 이들의 독립운동 사적과 유적지들을 적었다.

제4편에서는 중국공산당과 팔로군의 령도하에 태항산에서 항일투쟁을 진행한 조선혁명가들의 사적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책 출판의 기회를 빌어 이번 답사가 이루어지게 배려해주었을뿐만아니라 프로제작임무를 필자에게 맡겨준 중앙인민방송국 지도부에 사의를 표한다. 그리고 학문적인 스승일뿐만아니라 인간적인 가르침을 많이 주셨던 중앙당학교의 최룡수교수님께 깊은 사의를 드리고싶다. 력사고문을 맡았던 최룡수교수는 다년간 애써 연구했던 관련 자료와 성과를 전부 공개했을뿐만아니라 답사팀의 일원으로 많은 곳을 함께 다니셨다. 특히 당뇨병으로 하여 매일 《인술린》주사를 맞으면서도 젊은 기자들과 함께 가장 어려웠던 태항산전적지 답사를 진행했다. 최룡수교수의 참여가 있었기때문에 각 지 당사연구실의 도움을 받게 되었으며 북경의 많은 조선혁명가들의 유가족을 방문할수 있었다. 그리고 력사고문을 맡으신 길림성 연변의 사학자 권립교수와 박창욱교수, 답사팀을 함께 하면서 많은 조언을 주었던 연변텔레비죤방송국 서봉학주임, 답사팀 성원들인 중앙인민방송국 조선옥, 박군, 조향란기자, 연변텔레비죤방송국 박홍선, 김철기자에게 감사사를 드린다. 아울러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애써주신 민족출판사 편집일군들에게 사의를 표한다.

답사를 하면서 중국 관내의 수많은 조선인반일투쟁유적지마다에 기념비를 세우지 못하는것이 마냥 안타까웠다. 책을 통해 이러한 유적지에서 있었던 선렬들의 항쟁사적이 우리 민족 독자들 마음속의 영원한 기념비로 남겨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폭압과 불의에 굴하지 않고 언제나 뚝뚝하게 진리와 정의를 위해 희생적으로 싸운 선렬들의 투쟁정신이 오늘 중국대지에 살고있는 우리들에게 소중한 정신적힘이 되기를 바란다.

2005년 11월
저 자

차례

제1편 북경, 천진 지역

제1장 북경과 천진 지역의 주요사적지 — 3

1. 향산공원 · 3
2. 북경군사통일주비회의 개최지 삼패자화원 · 8
3. 대한독립청년단유적지와 레닌주의정치학교 옛터 · 12
4. 천진의 광동회관 · 15
5. 중국 항일전쟁의 전면개시를 의미하는 톈구교유적지 · 18

제2장 북경, 천진 지역의 사적지와 조선혁명가들 — 26

1. 단재 신채호의 사적지와 유가족 리덕남녀사 · 26
2. 혁명가이며 예술가인 한락면과 그 유가족 · 36
3. 지하투쟁의 별—리철부와 그의 사적지들 · 53
4. 혁명리론가 김규광과 그 유가족 · 64
5. 혁명가 김산의 생애와 활동지 · 81
6. 무정부주의자 류자명과 유가족 · 98
7. 독립운동가 김철남과 유가족 · 108
8. 주문빈렬사 일가와 사적지 · 118

제2편 광주에서 무한까지

제1장 광주지역 — 135

1. 바내리는 2월의 광주 · 136

2. 대혁명시기 광동에서의 조선혁명가들 · 138
3. 국공분렬후 공산당의 광주봉기에 참가한 조선혁명가들 · 182
4. 광주를 떠나며 · 212

제2장 흥도 서금 — 219

1. 발전을 꿈꾸는 오늘의 서금 · 220
2. 제1차전국쏘베트대표대회 개최지 엽평 · 224
3. 제2차전국쏘베트대표대회 개최지 사주패 · 229
4. 서금박물관을 찾아 · 235
5. 중앙홍군대학 옛터와 홍군특과학교유적지 · 238
6. 운석산유적지와 장정에서의 조선혁명가 양립, 무정 · 245
7. 서금에서 남창으로 · 251

제3장 남창지역 — 255

1. 강남의 명루 동왕각 · 256
2. 남창봉기와 조선혁명가들의 사적지 · 258
3. 북벌전쟁에서의 조선인기관총수 김준섭렬사 · 268
4. 남창에서 구강으로 · 276

제4장 천년고도 구강 — 278

1. 오로봉기슭의 성자군관학교 특별훈련반유적지를 찾아서 · 279
2. 구강시의 문화명소들 · 281
3. 중국의 정치명산—려산 · 284

제5장 무한지역 — 288

1. 고대명루 황학루 · 290
2. 중한국민호조사와 중국인변호사 시양 · 293
3. 북벌전쟁에서의 조선투사들 · 296

2 불멸의 발자취

4. 대혁명시기 무한의 유적지와 전적지 · 307
5. 조선의용대의 창립까지 · 316

제3편 상해, 남경 지역과 중경지역

제1장 상해, 남경 지역 — 335

1. 상해의 주요사적지 · 335
2. 해염, 가흥의 사적지 · 358
3. 남경의 사적지 · 372

제2장 중경지역 — 381

1. 중경의 한국림시정부청사 유적지 · 382
2. 모택동이 립정요인들을 접견한 사적지 개원 · 388
3. 기강의 사적지들 · 390
4. 중경시 오시아향의 한국림시정부유적지와 광복군사령부유적지 · 397
5. 중경시 남안구 탄자석의 사적지 · 400
6. 조선의용대 주력의 복상 · 404

제4편 태항산에서 연안까지

제1장 하북지역 --- 411

1. 보정사범학교 · 411
2. 보정육군군관학교 옛터 · 414
3. 석가광 화북렬사릉원 · 417
4. 호가장전적지 · 421
5. 한단의 진기토예렬사릉원 · 432
6. 한단에서 섭현으로 · 441
7. 리사화로인이 들려준 의용군의 이야기 · 443
8. 섭현 하남정진 · 445

9. 십현 중원향 중원촌 · 460
10. 십현 석문촌 · 469

제2장 태항산과 려량산 지역 — 478

1. 좌권현 운두저촌 · 478
2. 좌권현 동육진 상무촌 · 482
3. 좌권현 마진의 팔로군총부유적지 · 493
4. 태원의 진사 · 495
5. 려량산기술의 석루현 · 498
6. 석루현의 홍군동정기념관 · 501
7. 석루현 하가외촌으로 · 511
8. 양림의 희생지 하가외촌 · 515

제3장 섬북 연안 — 522

1. 하구나루터에서 연안으로 · 522
2. 혁명성지 연안 · 524
3. 양가령의 사적지 · 532
4. 연안의 섬감녕변구 참의회 강당 · 536
5. 정률성이 다닌 로신예술학원 · 539
6. 라가평촌의 조선혁명군정학교유적지 · 541

제4장 서안과 락양 지역 — 550

1. 서안의 사적지 · 550
2. 락양의 사적지 · 558

참고문헌 — 565

제1편

북경, 천진 지역

북경, 천진 지역은 20세기 20~30년대 관내 조선인반일투쟁의 주요한 거점의 하나였다..

이들은 이 지역 여러 대학교나 군사학교에서 공부하는 한편 중국의 초기공산주의자들인 진독수, 리대소 등과 접근하면서 중국의 《5.4》운동을 적극 동조하였다. 그리고 자체의 반일조직을 만들어 독립투쟁을 준비하였다..

북경, 천진 지역은 20세기 20~30년대 관내 조선인반일투쟁의 주요한 거점의 하나였다. 《3.1》운동을 계기로 많은 조선혁명가들이 북경에 모이게 되었다. 이 지역은 조선반도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기때문에 조선의 혁명가들이 압록강을 건너 비교적 쉽게 올수 있었으며 중국 동북지역과 린접한 길목이어서 당시 만주 조선인 반일단체와 혁명가들도 많이 모여왔다. 지리적으로 조선과 멀지 않았기때문에 돈 없어 먼 상해로 갈수 없었던 조선의 열혈청년들과 혁명가들이 많이 모여왔다.

이들은 이 지역 여러 대학교나 군사학교에서 공부하는 한편 중국의 초기공산주의자들인 진독수(陳獨秀), 리대소(李大钊) 등과 접근하면서 중국의 《5.4》운동을 적극 동조하였다. 그리고 자체의 반일조직을 만들어 독립투쟁을 준비하였다. 더우기 20년대초기 의열단(義烈團)이 북경에 본거를 옮겨 활동하면서 북경에 있는 많은 조선 청년들과 혁명가들을 단합시켰다는것이다. 한국임시정부(韓國臨時政府)를 수립한 상해에는 대부분 조선에서 명망 높은 혁명가와 명인, 지사들이 모인데 반하여 북경에는 빈곤한 청년들이 많이 모여왔다. 기득권자가 아니라 가난한 열혈청년들이 다수였기에 새로운 혁명사상을 쉽게 접수하고 또 적렬한 반일투쟁형식을 택하게 되었는데도 모른다. 북경 조선혁명가들은 공산주의사상을 많이 접수하면서 무력으로 일제에 대항하는 격렬한 투쟁수단을 취하였던것이다.

북경, 천진 지역 답사는 2003년 9월과 2004년 1월 두번에 나누어 진행되었다. 설명의 편리를 위해 답사순서를 부분적으로 바꾸어 서술한다.

제1장 북경과 천진 지역의 주요사적지

1. 향산공원

관내 조선인 반일투쟁사적지답사를 계획에서 실천으로 옮긴 것은 2003년 9월 15일부터였다. 연변텔레비죤방송국의 기획부 서봉학(徐凤鹤)주임과 촬영을 맡은 김철(金哲)기자가 답사팀에 합류하여 향산(香山)기슭에서 중앙당학교의 최룡수(崔龙水)교수를 만났다. 최룡수교수는 다년간 관내 조선인 반일투쟁연구에서 많은 성과를 올린분이어서 그분의 참여가 우리에게서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다.

북경의 가을은 날씨가 맑고 공기가 청신하여 일년중 가장 좋은 계절이다. 게다가 단풍이 갖 들기 시작한 때여서 붉은 단풍으로 유명한 향산은 유난히 아름다웠다. 향산은 북경시와 20킬로메터 떨어져있다. 귀견수(鬼见愁)는 향산의 주봉인데 험하기로 귀신도 곡할 지경이라는 데서 비롯된 이름이다. 그리고 주봉의 거대한 바위가 향로와 같다 하여 향로봉(香炉峰)이라는 이름도 있다. 해발은 557메터이다.